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

-עשרה ועשרה를 중심으로-

조용식*

1. 서론

본 소론의 목적은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들의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성서에 들어 있는 ‘지혜 문학’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혜 문학’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구약 성서 외경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 외경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 성서에서 ‘지혜서’라는 제목을 볼 수 있고,¹⁾ ‘집회서’의 경우 히브리어 사본들을 참조할 때 원래는 그 제목이 ‘예수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시라의 지혜’(The Wisdom of Yeshua son of Eleazar son of Sira)였을 것이다.²⁾ 그러나 정경 제목 가운데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특정한 성서 텍스트에 대해 ‘지혜 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서 시대 이후이다. 바벨론 탈무드 ‘바바 바트라’ 14b의 해설에서 라쉬는 잠언과 전도서에 대해 ‘지혜의 책들’³⁾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비록 여기에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원목, 구약학

1) 칠십인 역(A. Ralfs ed., Septuaginta)에서는 Σοφία Σαλωμωνου(=The Wisdom of Solomon).

2) P. W. Skehan and A.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B 39 (New York etc.: Doubleday, 1987), 3.

3) 히브리어로는 ספרי חכמה.

욥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후에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 문학’이라고 지칭하는 기원이 된다.

하지만 현대의 성서 비평에서 ‘지혜 문학’의 범주는 잠언, 전도서, 욥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문서 안의 다른 책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언서와 오경도 ‘지혜 문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 확대는 지혜 문학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지혜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본 소론에서는 ‘지혜 문학’의 범주를 잠언, 전도서, 욥기만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적어도 이 세 권의 책에 관한 한 이 책들이 지혜 문학이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나 현대 비평적 시각에서나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서 ‘부’(wealth)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요구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부’를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 그 기준을 삼도록 한다. 그렇다면 ‘부’를 나타내는 어휘의 선택 기준이 필요하다. 성서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마타노트’(מתנות)–“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창 25:6)
 ‘바이그달 하이쉬’(ויגרל האיש)–“그 사람이…마침내 거부가 되어”(창 26:13)
 ‘헤아쉬르’(העשיר)–“부자라고…더 내지 말며”(출 30:15)
 ‘타시그 야드’(תשיג יד)–“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레 25:47)
 ‘하일’(חיל)–“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 8:17)
 ‘야으쉐렌누 오쉐르 가돌’(יעשרנו עושר גדול)–“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교”(삼상 17:25)
 ‘베하이쉬 가돌 메오드’(והאיש גדול מאוד)–“심히 부하여”(삼상 25:2)
 ‘콜 기보레이 하하일’(כל גבורי החיל)–“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왕하 15:20)

‘혼 바오쉐르’(הוֹן וְעֵשֶׂר)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시 112:3)

위의 보기에서 ‘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표현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오직 ‘부’를 표현하는 데만 사용되는 전문적 용어이고(헤아쉬르, 야으쉐렌누, 오쉐르, 혼), 두 번째 그룹은 원래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개념상 ‘부’를 표현하고 있는 일반적 용어이다(바이그달 하이쉬, 타시그 야드, 베하이쉬 가돌 메오드, 콜 기보레이 하하일, 마타노트, 하일).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와 개념상 ‘부’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⁴⁾

	전문 용어	일반적인 표현
부자가 되다	아샤르(עָשָׂר)	가달(גָּדַל), 나사그 야드(נָסַח יָד)
부자	아쉬르(עֲשִׂיר)	이쉬 가돌(אִישׁ גָּדוֹל), 기보레이 하일(גִּבּוֹרֵי הַיָּל)
부 또는 재물	오쉐르(עֵשֶׂר), 혼(הוֹן)	마타노트(מַתָּנוֹת) 하일(הַיָּל)

전문 용어로 분류된 어휘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오직 ‘부’의 개념에만 사용된다. 반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분류된 어휘들은 원래 ‘부’의 개념과는 관계없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어휘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부’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부’의 개념을 표현하도록 차용되었다. ‘가달’이나 ‘이쉬 가돌’의 경우 ‘가달’은 ‘커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며, ‘가돌’은 ‘큰, 커다란’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창세기 26장 13절의 경우 축자적으로 ‘이삭이 크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정황은 이삭이 농사를 통해 큰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므로 문맥상 “거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도 아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하이쉬 가돌’(직

4) 이 도표에서는 관사, 접미사 등을 생략한 히브리어 ‘원형’을 기록했음.

역: 그 남자는 크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문맥상 나발의 체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요하다’라고 해석했다. 마찬가지로 ‘기보레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보르’라는 단어의 복수 연결형 ‘기보레이’와 ‘하일’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복합 명사인데 ‘기보르’나 ‘하일’이나 원래는 군사적 의미로서 ‘용사’라는 뜻이지만⁵⁾ 열왕기상 15장 20절에서 ‘기보레이 하하일’을 ‘큰 용사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큰 부자’라고 번역한 것은 여기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조공으로 바칠 은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때로는 그것이 ‘부’의 개념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해 (이쉬)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라 번역하고 각주에 ‘부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표시해 놓았다. 룻기의 의도가 보아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그의 재산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소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지 부의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와 관계된 표현의 선택은 오직 전문 용어가 사용된 구절로 한정된다. 그런데 전문 용어 가운데, ‘혼’(חון)이라는 단어와 같은 경우, 잠언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전도서와 욥기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도 본 소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잠언, 전도서, 욥기에 나타난 ‘부의 개념’ 비교는 오직 ‘아샤르’(עשר)에서 파생된 어휘들(עשר, עשרה)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소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עשר동사와 명사적 형용사 עשר만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재물’을 뜻하는 명사 עשר는 부의 개념 자체보다는

5) 사사기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기보르 헤하일’(גבורה חיל)이라고 부르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큰 용사여”라고 번역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입다도 ‘큰 용사’라는 의미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성서의 또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본 소론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2. 본론

2.1. רָצַח 와 욱기, 잠언

2.1.1. 동사 רָצַח 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서 동사 רָצַח 는 17번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이 동사는 단 한 번 사용되며(창 14:23; 램 5:27; 겔 27:33; 호 12:9; 슥 11:5; 단 11:2; 욱 15:29) 그나마 사무엘상과 시편에 각각 두 번씩 쓰인 것 외에는(삼상 2:7; 17:25; 시 49:17; 65:10) 오직 잠언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6회, 10:4, 22; 13:7; 21:17; 23:4; 28:20). 따라서 이 동사 용법이 지혜 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전도서에는 이 동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욱기에는 단 한 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5:29). 아울러 이 동사는 단 두 번의 ‘파알형’과 한 번의 ‘히트 파엘형’을 제외하고는 항상 ‘히필형’으로 사용되는 바, 욱기에서는 호세아 12장 9절과 함께 ‘파알형’으로 쓰이고 있다. 이 동사와 관련해 잠언과 욱기의 차이점은 사용 빈도와 동사의 형태에 있다.

사용 빈도 차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개념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다. 욱기에서 이 동사가 단 한 번 사용된다는 사실은 부의 개념이 욱기의 관심사는 아니며 욱기에 나타난 부의 개념은 다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욱기에 나오는 부의 개념이 어떤 주제와 관계가 있는지는 욱기의 해당 구절을 설명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는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עָשָׂר 동사의 ‘과알형’은 욥기 15장 29절과 호세아 12장 8(9)절에 단 두 번 나오는데, 호세아에서는 완료형 1인칭으로 ‘아샤르티’(עֲשַׂרְתִּי), 욥기에서는 미완료형 3인칭 단수로 ‘에으샤르’(עֲשַׂר)형태이다. עָשָׂר 동사의 ‘과알형’ 용법에서 중요한 점은 두 군데의 보기 모두 עָשָׂר 동사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어의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평행법(parallelism)을 사용해서 עָשָׂר 동사와 평행하는 어구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추가된 어구의 용법은 단순한 동어반복이 아니다. 평행하는 어휘의 형태나 의미가 서로 동의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된 어구의 목적은 עָשָׂר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욥기 15장 29절과 호세아 12장 8(9)절 비교

욥 15장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לֹא־יְעֲשֶׂר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וְלֹא־יָקוּם חֵילוֹ
호 12장 8(9)절	“...나는 실로 부자라 אֲנִי עֲשַׂרְתִּי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קָנַצְתִּי אֵין לִי

위의 두 구절에서 욥기 15장 29절의 경우 ‘재산이 있다’라는 어구가 ‘부요하다’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으며, 호세아 12장 8(9)절에서는 ‘재물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부자’라는 말을 보충한다. 물론 עָשָׂר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들이(חֵיל, חַיִּל) 항상 ‘재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⁶⁾ 본 구절의 문맥에서는 경제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⁷⁾ 게제니우스(Gesenius)에 따르면 원래 עָשָׂר 동

6) חֵיל이나 אֵין은 대개 ‘힘, 기력’(vigor) 등의 의미를 갖는다.

7) חֵיל이 ‘재물’(wealth)의 의미를 갖는 경우-창세기 34장 29절; 민수기 31장 9절; 신명기 8장 17, 18절; 33장 11절; 이사야 8장 4절; 10장 14절; 30장 6절; 60장 5, 11절; 61장 6절; 미가 4장 13절; 예레미야 15장 13절; 17장 3절; 스바냐 1장 13절 에스겔 26장 12절; 28장 4, 5절; 스가랴 14장 14절; 욥기 5장 5절; 15장 29절; 20장 15, 18절; 31장 25절; 시편 49장 7, 11절; 62장 11절; 73장 12절; 잠언 13장 22절(참조, BDB, 299). 그러나 욥기 15장 29절의 경우 חֵיל 자체의

사의 ‘과알형’은 ‘곧게 되다’(to be straight)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자가 되다’라는 뜻이 생겼을 것이라고 본다.⁸⁾ 어떤 일이 굽지 않고 곧게 펴지는 것은 곧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보기에서 왜 עָשָׂר 동사의 ‘과알형’만으로 부의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다른 어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עָשָׂר 동사의 ‘과알형’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⁹⁾

반면에 עָשָׂר 동사의 ‘히필형’과 ‘히트과알형’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동족어 עָשָׂר를 강조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삼상 17:25; 단 11:2 등), 다른 어구의 도움을 받아 부의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다. עָשָׂר 동사만으로 부의 개념은 충분히 표현된다. 잠언에서는 단 한 번 ‘히트과알형’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13:7) 오직 ‘히필형’만 사용된다. עָשָׂR 동사의 사용 빈도와 동사의 형태와 관련하여, 잠언은 부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동사의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잠언의 이러한 특성을 읍기와 비교할 때, 비록 지혜 문학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해 있지만 부의 개념에 관한 한 잠언과 읍기의 관심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2. 읍기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15:29)

읍기 15장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로(1절 참조) 본 구절은 데만

뜻보다는 חילו יקום 라는 어구로 עָשָׂR의 의미를 보충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8) Geseniu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 P. Tregelles, trans. (Grands Rapid, MI: Baker Books, 1979), 660.

9) 이 동사의 어원과 용법에 관해서는 M. Sæbø, “עָשָׂR,” *TDOT XI* (Grands Rapid: Eerdmans, 2000), 417 이하 참조.

사람 엘리바스가 묘사하는(20절 이하) ‘악인’(히: רשע)의 일생 가운데 닥칠 재앙의 하나로 언급된 것이다. 본 구절 전반부, 우리말로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יָקוּם חַיְלוֹ에서 동사 יָקוּם은 ‘일어나다, 서다.’라는 의미로 חַיְלוֹ יָקוּם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의 재산을 세우지 못하고’라는 뜻이다. ‘세워져 있다.’라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있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세워지다.’라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면, ‘앞으로 있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¹⁰⁾ 본 구절의 후반부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에서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레’[מַנְלָה-본문 형태는 소유대명사와 함께 ‘민람’(מַנְלָה)]는 본 구절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이므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지만,¹¹⁾ מַנְלָה라는 동사 표현과 함께 עָשָׂר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우리말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라고 번역된 동사 표현에서 עָשָׂר동사는 ‘내밀다, 뻗다, 퍼지다, 확장하다, 기울다, 굽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부요하다.’(עָשָׂר)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세우다.’(יָקוּם), ‘뻗다.’(עָשָׂר)라는 동사들의 의미는 성장과 발전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제 ‘부요하다.’라는 동사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에 의해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시 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욥기 15장의 문맥으로 돌아가서 본 구절이 ‘악인’(20절)에게 닥칠 재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부요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재앙일까? ‘가난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가난해지는 것’은 재앙이 될

10) ‘지속되지 않는다(will not endure)’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N. C. Habel, *The Book of Job*, OTL (London: SCM Press, 1985), 260) 이 해석은 욥기 15장 정황에 맞지 않다. 아래 설명 참조.

11) 앞의 חַיְלוֹ에서는 단수형 소유격 어미를 사용했고, 본문의 정황에서도 ‘악인’은 단수형으로 언급되었지만 본 구절에서 מַנְלָה에 복수형 어미 מֵ-을 사용한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가능한 현상이다. 본문 35절에서도 복수형(‘그들은’)으로 표현했다. 참조, F. Delitzsch, *Job*, F. Bolton, tra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rep. 1976), 270.

수 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욥기 15장에서는 본 구절 이전에 이미 악인에게 닥칠 경제적인 재앙을 언급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23절),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28절). 욥기 15장의 악인은 이미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부요해지지 못하며’라는 표현으로 새삼스럽게 경제적 재앙을 언급하는 것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세운다는 것(צִיָּוָה)’, ‘뺨어나간다는 것(פָּחַד)’, 여기에는 새로운 출발의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로 설명되는 ‘부요해지다.’의 개념은 물질적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본 구절에 나타난 부의 개념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회복을 암시한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부요해지지 못하며’라는 표현은 악인에게 이미 임한 저주가 ‘돌이켜지지 않으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욥이 회복되는 과정은 본 구절의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42:10). ‘갑절의 소유’는 표면상 경제적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욥의 곤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질병과 따돌림과 친구들의 공격, 스스로의 좌절 등 신체적, 사회적, 신앙적, 심리적 문제를 다 포함한 것이 욥의 곤경이었다. 어쩌면 경제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러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곤경을 돌이키신’ 결과가 오직 ‘갑절의 소유’라는 경제적 용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욥기에 나타난 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표현과 의미의 간격이 넓기 때문이다. 욥기에서는 구약 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회복’을 오직 물질적으로 표현한다.

2.1.3. 잠언

잠언에서는 עָשָׂר 동사가 6번 사용된다. 그 중에서 ‘히트파엘형’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 잠언 13장 7절 경우 현재 분사형이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부요해짐’에 대한 내용보다는 ‘부자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부자에 대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잠언의 나머지 다섯 구절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상 이 구절들은 부요해짐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표 3> 부요해짐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10:4) רֵאשׁוּ עֲשֵׂהוּ כְּרֵמִיָּה וְיָד הַרְוֵנָה תַעֲשִׂיר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움> 지혜를 버릴지어다”(23:4) אַל-תִּינַע לְהַעֲשִׂיר מִבִּינְתָהּ חָדָ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하니하시느니라”(10:22) בְּרִכְתּוֹ יְהוָה הֵיחָא תַעֲשִׂיר וְלֹא-יִזְכָּךְ עֵצֶב עִמָּ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28:20) אִישׁ אֱמוּנָה רַב-בְּרִכּוֹת וְאִין לְהַעֲשִׂיר, לֹא יִגָּף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21:17) אִישׁ מְחַסֵּר אֹהֵב שְׂמֵחָה אֹהֵב יוֹ-דַעְמֹן, לֹא יַעֲשִׂיר	

먼저 잠언의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에서 사용되는 עָשָׂר 동사 형태를 살펴보면 긍정적 입장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는 ‘히필형’으로 이 어근의 기본적인 용법은 ‘~하도록 시키다(causation)’이다.¹²⁾ 따라서 부의 개념과 관련해 이 어근의 주어는 곧 부요함의 ‘원인’이다.

12) P. Joüon and S. J.-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chicago: Loyola Pr, 2008), §54d, 참조.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יד הרוצים**로 동사 **תעשיר**의 주어는 **יד**이며 ‘손’이라는 명사가 여성형이므로 동사 형태를 거기에 일치시켰다. 물론 그냥 손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הרוצים)의 손이다.¹³⁾ 그러나 사람의 손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이 ‘부하게 한다는 것’(תעשיר)이다. 여기서 본 구절은 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신학적 입장을 달리 한다.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아브람은 전리품을 모두 가지라는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네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ולא האמר אני העשרתי את־אברם)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소돔 왕) 아브람을 부하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도록.”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은 소돔 왕이 부요함의 주체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부의 근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사무엘상 2장 7절, ‘하나의 기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יהוה מוריש ומעשיר). 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4절에 나타난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요하게 한다’는 교훈에서 신학적 의미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잠언 21장 17절에서 부요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저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¹⁵⁾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말로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שמחה**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즐거움’[창 31:27; 왕상 1:40;

13) **יד הרוצים**이라는 표현은 본 구절 외에 또 한 번 **יד הרוצים** **יד** 부지런한 자의 손, 12:24, 그리고 **נפש הרוצים**(부지런한 자의 마음, 13장 4절)이라는 어구로 사용된다. 13장 4절에서 **נפש הרוצים** **נפש** **עצל**이라는 어구와 대조되는데, 잠언에서 **עצל**은 ‘게으름뱅이’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따라서 그 상대적 개념인 **הרוצים**은 ‘부지런한 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14) 창세기 14장 23절에 나타난 부의 개념에 관해서는 본인의 학위 논문 “The Concepts of Wealth in the Book of Proverbs between Reality and Idea,” Ph. D.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in Jerusalem, 2006), 21-24에서 다루었다.

15) 이 개념은 이미 위에서 다룬 욱기 15장 29절을 참조할 것.

에 8:16; 잠 10:28; 사 9:2(히 3); 16:10; 24:11; 숙 8:19 등], ‘기쁨’[신 28:47; 예 9:22; 시 4:8(히 7); 16:11; 30:12(히 11); 45:16(히 15); 전 9:7; 사 29:19; 66:5; 습 3:17 등], ‘희락’(민 10:10; 대하 30:26; 시 43:4 ‘극락’; 전 2:2; 8:15 등) 등으로 번역되었다.¹⁶⁾ 그러나 오직 잠언 21장 17절을 제외하고는 성서에서 שמחה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는 없다. 다만 전도서 7장 4절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연락하는 집에’(בבית שמחה)라는 표현에서 שמחה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술과 기름과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잠언의 진술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잠언 10장 22절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재물이 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עָצַב는 매우 신학적인 용어이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여자가 받은 벌, ‘잉태하는 고통’에 사용된 표현이 עָצַב이며(창 3:16), 남자가 받은 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에서 역시 같은 어근에 속한 단어 עֲצִיבוֹן이 사용되었다(창 3:17). 그런데 이러한 ‘근심’이 수반되지 않는 ‘부의 비결’은 곧 ‘여호와와 의 복’(ברכת יהו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잠언의 신학적 이해는 단편적인 구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언급으로부터 고도의 신학적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입장에서는 모두 부정사형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되었다. 이 구절들에서 경고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잠언 23장 4절 경우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אַל-תִּתֵּעַב לְהַעֲשִׂיךָ이다. 직역하면 ‘부자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다. 본 구절은 사실 23장 1-8절 단락

16) 히브리어 원어성서원 편집부 편, 『스테판 원어 성구사전』(서울: 원어성서원, 2003) 참조.

일부분으로 단락 전체 핵심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 데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구절의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אָלֹאֵיָנִי 라는 어구는 נָנַח(접촉하다)라는 동사의 부정 명령형인데, 이 단어에는 대개 접촉의 대상이 나오게 된다. 본 구절에서는 접촉 대상 없이 바로 뒤에 אֲנִי־לֹא 라는 부정사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부정사 표현이 접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접촉의 대상은 단락을 참조할 때 함께 음식을 먹는 ‘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의 의도는 ‘부자가 되기 위해 관원과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설령 부자가 되고 싶더라도 관원과 접촉하는 것은 삼가라는 뜻이다.

잠언 28장 20절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초점이 ‘부자 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고의 대상은 אִישׁ 라는 존재이다. ‘충성된 자’(אִישׁ אֲמוּנָה)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אִישׁ의 의미는 단순히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볍고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가 설령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다 하더라도(즉, 그럴듯한 목표가 있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자의 개념’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2.2. עֲשִׂירַּ와 옴기, 전도서, 잠언

2.2.1. עֲשִׂירַּ에 대하여

עֲשִׂירַּ는 형용사이지만 성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며 대개 ‘부자’라고 번역된다. 이 단어는 대개 상대적 개념인 ‘가난한 자’나 ‘빈민’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부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עֲשִׂירַּ 하나인데 반해, ‘빈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עָנִי, רָשׁ, גֵּל, אֲבִיּוֹן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므로 학자들은 עֲשִׂירַּ의 상대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부자의 의미를 구분하기도 한다.¹⁷⁾ 그러나 본 소론에서는 ‘빈민’을 나타내는 용어와의 상대적 비교는 고려하지 않는다. 욕기와 전도서의 경우 עשירי와 함께 ‘빈민’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עשירי는 총 23회의 성서 전체 빈도 수 가운데 잠언에 9번, 전도서에 3번, 욕기에 1번 나타난다.

2.2.2. 욕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27:19)

본 구절은 욕기 27장 13-23절 단락에서 언급하는 악인에 관한 저주의 일부이다. 악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욕기 15장 29절에서 살펴본 동사 עשיר에 나타난 개념과 같다. 다만 동사 עשיר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서 언급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욕의 말 가운데 언급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명사 עשיר이 악인을 가리키는 경우는 욕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나단 비유에서 עשיר은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עשיר이 ‘악인’의 대구로 사용되고(“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미가 6장 1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라는 말로 עשיר의 죄를 지적한다. 그런데 부자들에 대한 이런 묘사는 단지 윤리적인 면에 국한될 뿐, 신학적 의미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욕기에 나타난 부자의 개념은 신학적인 문제와 관계가

17) 이를테면 M. Schwantes, *Das Recht der Armen* (Frankfurt am Mein/Bern/Las Vegas: Lang, 1977), 276; H. Delkurt, *Ethische Einsichten in der alttestamentlichen Spruchweish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100, 각주 55, 참조.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עשיר의 의미가 단지 윤리적 범주로만 한정된다는 데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92-114.

있다는 점에서 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차이가 있다. 욥기에서는 단순히 부자의 행실이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는 אֵלֵינוּ אָנֹכִי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אָנֹכִי는 אָנֹכִי동사의 ‘니프알형’으로 ‘죽다’라는 의미로 쓰인다(참조, 민 20:26, וְאַתָּה יְהוָה אֱלֹהֵינוּ וְאַתָּה יְהוָה). 그런데 이사야 57장 1-2절에서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וְאֵנְשֵׁי־חַיִּים נִצְּבִים)과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감’(הַצְּדִיקִים הַצְּדִיקִים)을 말하면서 이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אָנֹכִי의 개념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기 27장 19절에서 부자에 대해 אֵלֵינוּ라고 표현하는 의도는 결국 부자가 편히 죽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¹⁸⁾

2.2.3. 전도서

<표 4> 부자에 대한 태도

호의적 태도	부정적 태도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10:6) וְהָאִיִּם בְּמַרְוֵמוֹם רָבִים וְעֵשִׂירִים בְּשֹׁפֵל יָשְׁבוּ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5:12(히 12)] מִתּוֹקָה, שְׁנַת הַעֲבֹד אִם־מֵעַט וְאִם־הַרְבֵּה יֹאכֵל וְהַשְּׁכָבֶה לְעֵשִׂיר אֵינָנוּ מְנַחַח לוֹ לַיָּשׁוּן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10:20) גַּם בְּמַחְשְׁבֹתָי מִלֶּךְ אֶל־תִּקְלַל וּבְחַדְרֵי מִשְׁכַּבְּךָ אֶל־תִּקְלַל עֲשִׂיר	

18) 그런 의미에서 하벨은 본 구절의 핵심은 부자의 ‘재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부자가 ‘내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N. C. Habel, *The Book of Job*, OTL (London: SCM Press, 1985), 387]. 반면에 유대인 학자 투르시나르는 그의 히브리어로 된 주석, 『세페르 욥』, 2 (예루살렘: 키프야트 세페르, 1957), 321에서 ‘부자는 재물을 쌓으나 눈을 감았다 뜨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의 해석은 ‘이슈카브’를 ‘아슈키브’로 모음을 변화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

전도서의 세 구절은 각각 다른 정황에 속해 있지만 부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호의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그러나 호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부자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부자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태도라고 해서 욕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자의 죄나 저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세속적이며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도서에 나타난 부자의 개념에도 신학적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전도서 10장 6절은 바로 앞 5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폐단’(חֵטְא)의 두 가지 보기 중 하나이다. 전도자는 이 폐단이 주권자가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 낸 것(חֵטְא)이라고 보는데, 그 결과 우매자는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는 낮은 지위에 앉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자’를 ‘우매자’의 상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지혜 문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¹⁹⁾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자와 사회적(정치적) 지위와의 관계이다. 부자는 단순히 경제 주체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도서만의 특징은 아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히 22장)에서 부자는 ‘지혜로운 자’, ‘용사’ 등의 정치적 주체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시편 45장 12절(히 13장)에서 ‘백성 중 부한 자’는 왕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전도서 10장 6절에 나타난 신학적 입장은 무엇일까? 부자의 지위가 비정상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가 사실은 전도자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현실은 오직 ‘주권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일 수는 없다는 개념이 나타난다. 전도자가

19) R. Gordis, *Kobeletb-The Man and His World*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1), 310.

말하는 ‘주권자’(מְלִיךָ)는 세속적인 권력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높고 있는 ‘운명의 주권자’일 수도 있다.²⁰⁾

전도서 10장 20절도 단순히 부자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부자는 왕의 상대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의 핵심은 부자에게나 왕에게나 저주를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지만, 중세 유대인 주석가 라쉬바에 따르면 본 구절의 교훈은 ‘감추어져 있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¹⁾ 그런데 왕이나 부자나 자신들의 힘으로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심중에 저주한 것, 방 안에서 말한 것을 밝혀내는 것은 새와 날짐승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왕과 부자라는 돈과 권력의 상징에 새와 날짐승이라는 거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의 상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전도서 5장 12절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배부름’(שָׂבֵט)은 부자의 조건이다.²²⁾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자가 있다. 반면에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잠을 편히 자는 노동자가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단지 ‘배부름’만이 부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닐까?

2.2.4. 잠언

잠언의 특징은 부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부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단지 עָשִׂיר에 국한되지

20) 전도서 8장 19절(히 18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의 히브리어 표현은 מִן כָּל־הָאֲדָמָה אֲשֶׁר נָתַן לֹא הָאֱלֹהִים...וְהִשְׁלִיכוּ לָאֱלֹהִים ‘우리가 하시며’에서 שָׂבֵט 동사를 사용했다.

21) S. Japhet and R. B. Salters, *The Commentary of R. Samuel Ben Meir (RASHBAM) on Qoheleth* (Jerusalem/Leiden: The Magness Press/E. J. Brill, 1985), 198.

22) 여기서 히브리어 שָׂבֵט는 명사이다. 따라서 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역하면 ‘배부름이 부자의 잠에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이다.

않는다. 그럼에도 서론에서 언급했듯 욱기, 전도서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세 본문에 다 나오는 공통적인 용어 עשיר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용어를 중심으로 잠언에 나타난 부자의 개념을 살펴볼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표 5 참조).

첫째, ‘현실적’ 그룹으로 부자와 빈민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어떠한 윤리적 문제나 신학적 문제도 의식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자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나 빈민에 대한 동정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부자의 행동이나 빈민의 처지에 대한 신학적 언급도 없다. 단지 부자의 개념만이 나타날 뿐인데, 부자의 본질과 부자의 행동을 묘사한다. 잠언 10장 15절은 부자의 본질을 말한다. 부자란 그의 재물이 견고한 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즉, 부자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재물’이라는

<표 5> 잠언에 나타난 부자의 개념

현실적	사변적	신학적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10:15) הוֹן עֲשִׂיר קָרִיִּת עֵזוֹ מִחַתַּת רִגְלִים רִישִׁים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22:16) עֲשֶׂק גָּל לְהַרְבּוֹת לוֹ נָתַן לְעֲשִׂיר אֶדְ-לְמַחְסוֹר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18:11) הוֹן עֲשִׂיר קָרִיִּת עֵזוֹ וּכְחוֹמָה נְשֹׂבָה בְּמִשְׁכֵּיתוֹ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14:20) גַּם-לְרֵעֵהוּ יִשְׂנֵא רֵשׁ וְאַהֲבֵי עֲשִׂיר רַבִּים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28:6) טוֹב-רֵשׁ הוֹלֵךְ בְּחֵמוֹ מִעֲשֶׂק דְּרָכִים וְהוּא עֲשִׂיר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사니라”(22:2) עֲשִׂיר וְרֵשׁ נִפְגְּשׁוּ עִשָׂה כָּל-אֶם יִהְיֶ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18:23) תַּחֲנוּנִים יְדַבֵּר-רֵשׁ וְעֲשִׂיר יַעֲנֶה עֲזוֹת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28:11) חָכָם בְּעֵינָיו אִישׁ עֲשִׂיר וְדָל מִבֵּין יִחְקְרוּנוּ	

것이다. 잠언 14장 20절은 어떤 면에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구절인 잠언 10장 15절 개념을 보완해 준다. 재물을 소유한 것만으로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장 23절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부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나온다.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말 뉘앙스에서 ‘엄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거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가능하다. ‘엄한 말’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성서 개념에서는 ‘대답’ 자체에 의미가 있다. ‘대답’ 자체는 거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אָמַר은 원래 ‘강하게’라는 뜻이다. 따라서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구절에서 부자는 ‘확실하게 대답한다’는 뜻이 된다.²³⁾

그러나 잠언은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변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잠언 22장 16절을 보면 부자를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말하는 ‘부자에게 주는 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본문은 단지 다음과 같은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자와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가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단지 사변적일 뿐이다. 잠언 28장 6절에서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한 부자보다 낫다’고 할 때, 무엇이 낫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핵심은 부자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윤리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28장 11절 경우 부자의 개념은 더욱 불분명하다. 부자가 아니라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에 틀림없다.²⁴⁾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명철함’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명철

23)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C. H. Toy, *The Book of Proverbs*, ICC (Edinburgh: T&T Clark, 1988), 366, 참조.

24) 참조, 잠언 26장 12절.

한 가난한 자’). 사변적인 입장에서도 ‘명철함’은 부요함의 조건이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두 번째 ‘사변적인’ 단계는 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빈민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데 집중한다.

그렇다면 잠언에 동시에 나타나는 ‘부자’에 대한 이러한 상반적인 태도(적극적인 관심, 철저한 무관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대적 차이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자료에서 기인한 것일까? 세 번째 그룹으로 분류되는 ‘신학적’ 입장을 나타내는 구절들 가운데 עשירי를 사용하는 구절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룹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잠언 18장 11절은 첫 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잠언 10장 15절과 앞부분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구절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다. 특히 잠언 18장 11절은 그 바로 앞 구절인 10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10절의 ‘안전함을 얻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 עשירי는 11절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עשירי).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10절과 11절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소개한다. 여호와와 이름의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는 사람(10절)과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는 사람(11절). 따라서 잠언 18장 11절은 잠언 18장 10절과 연결되어 잠언 10장 15절에 대한 신학적 변화를 보여준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현실적 입장이든 사변적 입장이든 잠언에서 항상 대립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잠언 22장 2절에서 둘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둘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똑같은 존재라는 선언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다. 이는 경고인 동시에 소망의 선포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신학적 입장’에서는 빈민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다.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정의

25) 참조, 잠언 24장 3-4절.

대상도 아니다.²⁶⁾ 이 점에서 바로 앞에서 다룬 잠언 18장 11절에서도 부자에 대한 ‘신학적 경고’의 와중에 빈민을 아예 언급조차 않는 것은 이러한 ‘중립적’ 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부자에 대해 ‘현실적’ 입장을 나타내는 잠언 10장 15절과 ‘신학적’ 입장을 나타내는 잠언 18장 11절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은 잠언에 나타나는 상반적 태도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증거한다. 아울러 ‘신학적’ 입장에서 보여주는 부자와 빈민 사이의 ‘중립적’ 태도는 부자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사면적’ 이해를 모두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잠언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은 종합적이며, 이러한 종합적 이해의 연결 고리를 신학적 진술이 담당하고 있다.

3. 결론

우리는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을 통해서 모든 진술이 신학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지혜 문학이 세속적이며, 현실적 성공을 추구한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가장 세속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의 개념’조차 지혜 문학에서는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언의 경우 문맥과 상관없는 단편 구절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절들은 독립적이라고 여겨졌다. 그 결과 현실적 단계에 속해 있는 구절들의 경우 잠언의 세속적 특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보기들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세속적인 특성의 강조는 이것들이 마치 잠언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잠언의 세속적 특성이 부각된다

26) 신학적 입장에서의 빈민에 대한 중립적 태도는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27) 다시 말해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중에 빈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빈민에 대한 호의를 나타낼 수 있다.

고 해서 그것이 잠언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잠언의 세속적인 특성은 동시에 사변적, 신학적 태도라고 부를 수 있는 상반된 그룹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잠언이 전하는 메시지의 일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동시에 이러한 그룹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유기적 관계’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어휘와 문학적 구조의 비교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성서의 지혜 문학은 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굉장히 다른 문체, 다른 사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목표와 주제는 결코 다르지 않다. 그것은 표현과 양식의 다양성에서 기인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컬처(Culture)’가 달라도 ‘캐논(Canon)’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학적 진술의 동질성에 있다.

<주요어>

부, 지혜 문학, 신학적, 윤리적, 세속적, 물질적, 욕기, 전도서, 잠언

<Key words>

Wealth, Wisdom Literature, Theological, Ethical, Secular, Material, Job, Ecclesiastes, Proverbs

* 접수일 2009년 8월 24일, 수정일 2009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22일

참고문헌

-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92-114.
- 히브리어 원어성서원 편집부, 『스테판 원어 성구사전』, 서울: 원어성서원, 2003.
- Delitzsch, F., *Job*, Bolton, F., tr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rep. 1976.
- Delkurt, H., *Ethische Einsichten in der alttestamentlichen Spruchweish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 Geseniu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 P. Tregelles, tran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79.
- Gordis, R., *Kobeletb-The Man and His World*,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51.
- Habel, N. C., *The Book of Job*, London: SCM Press, 1985.
- Japhet, S. and R. B. Salters, *The Commentary of R. Samuel Ben Meir (RASHBAM) on Qobeletb*, Jerusalem-Leiden: The Magnes Press/E. J. Brill, 1985.
- Jouion, P. S. J.,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 Muraoka, trans. and rev.,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 Schwantes, M., *Das Recht der Armen*, Frankfurt am Mein/Bern/Las Vegas: Lang, 1977.
- Skehan, P. W. and A.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New York etc.: Doubleday, 1987.
- Sæbø, M. “עשׂר,” *TDOT* XI, Grand Rapids: Eerbmans, 2000, 417-422.
- Toy, C. H., *The Book of Proverbs*, Edinburgh: T&T Clark, 1988.
- Tur-Sinai, N. H., *The Book of Job*, Jerusalem: Kiryath Sepher, 1957.

<초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

-עשרה ועשר을 중심으로-

조용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원목, 구약학)

본 소론에서는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을 통해 구약 성서 지혜 문학의 본질을 재고한다. 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 עשר와 그 파생어 עשרה가 사용되는 율기, 전도서, 잠언의 해당 구절들 가운데, 율기와 전도서에서는 부의 개념이 단지 신학적 진술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며 부의 개념은 철저하게 신학적 정황 안에 놓여 있다. 반면에 잠언에서는 부의 개념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특별히 세속적인 정황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발견되어 비록 정경이지만 잠언에는 여전히 세속적, 물질적 관심이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의 개념과 관련해서 잠언에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즉, 세속적 물질적 관심은 윤리적 개념들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으며, 윤리적 개념들은 신학적으로 승화된다. 그러므로 잠언에서조차 부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신학적 진술이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부의 개념이 성서의 지혜 문학에서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지혜 문학의 본질이 신학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Abstract>

Wealth and Theology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Dr. Yongsik Cho

(a Chaplin in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of Myongji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oncept of wealth in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Bible, through exegetical study on the verses in Job, Ecclesiastes and Proverbs, where the Hebrew term עֶשֶׂר or the derivation עֲשִׂיר appears. It shows that the rich in these texts are treated in the theological context only. In the Book of Proverbs where the term עֶשֶׂר and עֲשִׂיר appears the most in the Bible, it seems that the secular milieus are emphasized in regard to the concept of wealth. But the proverbial texts are to be in organic relationship and we can find the concept of wealth in Proverbs is made by whole three stages: secular, ethical and theological. The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sages in Proverbs is to make theological statement concerning wealth. The fact that wealth, the most secular subject is reinterpreted as a theological one may help prevent further claims that the wisdom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is mundane, materialistic and so on.